**2012. 3. 31. [보도자료]**

|  |
| --- |
| **SK E＆S, 1MW급 지붕형 태양광발전 가동** |

SK E＆S의 경남 함안 1MW급 최첨단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다.  
  
SK E＆S（대표 문덕규）는 31일 경남 함안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함안부품센터에서 1MW급 최첨단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함안 태양광발전소는 르노삼성차 측이 임대한 함안 차량부품센터를 활용, SK E＆S가 시행을 맡았으며, LS산전이 시공했다.  
  
특히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건축물의 지붕을 활용하는 지붕형 태양광발전소로 일반 대지 및 산림 등지에 건설되는 경우에 비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함안 태양광발전소 가동에 따라 SK E＆S는 연간 1201 M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약 334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라고 E＆S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태양광을 이용한 무공해 전력생산을 통해 연간 약 51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약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신창동 SK E＆S 전력사업개발본부장, 나기성 르노삼성자동차 물류본부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준공식에서는 공사 경과보고 및 축사 등에 이어 향후 발전소의 안전 운영을 염원하는 안전기원제가 진행됐다.  
  
E＆S 관계자는 “함안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